

2007. 3. 5 제162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7. 3. 5 제162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고베市の 종합복지타운 ‘행복촌’

도시경영·경제

1. ‘베를린 어젠다’ 추진방안 모색 (베를린)
2. 관리인력 채용 프로그램 시행 (뉴욕)
3. ‘양대 하이테크 벨트 시스템’ 도시 공간분포 계획 마련 (북경)

디지털도시

4. 市 개발계획을 지리정보 서비스로 제공 (뉴욕)

복지·문화

5. 市를 브랜드화한 콘돔 생산 (뉴욕)
6. 구립 초·중학교 통합교육 추진 (도쿄都 시나가와區)
7. ‘불이 켜진 런던’ 조명행사 개최 (런던)

도시환경

8. 초·중학교 에코 스쿨화 추진 (도쿄都 스기나미區)
9. 도심에 도시농장 운영 (런던)
10. 학교 방음시설 설치자금 지원 (뉴욕)
11. 이산화탄소 배출료 제안 (런던)
12. 도시 전체를 환경구역으로 지정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13. ‘도쿄 어스(Tokyo Earth) 프로젝트’ 시행 (도쿄都 미나토區)

도시교통

14. 도로 횡단 시 휴대용 MP3 청취 금지 추진 (뉴욕州)
15. 市 교통국의 독자적인 법원 설립 추진 (로스앤젤레스)
16. 자전거 배달원에 헬멧 제공 의무화 (뉴욕)
17. 유료 고속도로 확대 건설 (캘리포니아州)
18. 효율적인 주차공간 관리방안 마련 (베를린)

도시계획·건설·주택

19. 런던 디자인국 신설 (런던)
20. 차이나타운에 ‘Blossom Plaza’ 건설 (로스앤젤레스)
21. 고층 건물의 색채기준 초안 공표 (도쿄)
22. 300만㎡ 규모의 중저가 주택단지 건설 (북경)

[벤치마킹 사례]

고베市の 종합복지타운 ‘행복촌’

<주요 내용>

- 고베市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종합복지타운인 ‘행복촌’(幸福村)을 고베市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1989년에 설립해 운영함.
 - 총 2.1km²에 이르는 대규모 종합복지타운 건립부지의 90%와 약 3500억 원에 이르는 건립비용을 고베市 재정으로 부담했으며 연간 210억 원의 운영비 중 70~80%를 고베市가 지원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익으로 충당함.
 - 재활병원, 노인 요양시설, 직업 재활학교뿐 아니라 가족호텔, 온천, 공원 등의 휴양시설이 있어 장애인과 노인 외에도 일반인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음.
 - 재활병원과 치매병원, 장애인 통원시설 등 10개의 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장애인시설은 재택 장애인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시설부터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 골프장과 승마장, 온천, 양궁장, 캠프시설 등 24개의 레저시설을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일반인 등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는 공간 제공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통합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복촌은 레저시설과 복지시설이 자연스럽게 융합돼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고령자와 비고령자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
 - 도요타와 소니 등 일본 대표 기업이 매년 이곳에서 직원 연수를 겸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이곳 시설을 이용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는 삶의 현상이 되고 있음.

○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여가생활 공간 제공

- 골프장과 승마장, 온천, 양궁장, 캠프시설 등 24개 레저시설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치됨. 장애아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도 개방됨.
- 57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인 고베노인대학은 3년 정규과정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해설 및 평가>

○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종합복지레저타운

- 고베시장이 유럽의 복지 선진국가를 방문한 뒤 서구 복지제도를 본떠 설립한 행복촌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통합 모델을 제시함.
- 고베市 의사사회와 사회복지단체가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주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역할을 함.

○ 지역사회 개방형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비장애 및 연령 통합적인 환경 조성

- 행복촌의 복합시설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시설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노인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하고 지역사회에도 개방해 장애인·비장애인, 고령자·비고령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임.
- 행복촌의 레저시설은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으며 여가시설과 복지시설이 융합돼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제한적인 장애인·고령자 복지시설 및 서비스

- 현재 서울시는 지역별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설치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며 장애인·비장애인이나 고령자 통합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복지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규모 시설의 경우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여가·휴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함께 여행하거나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시설은 매우 제한적임.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로 가족단위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장애인과 노인은 소외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여가·문화프로그램이 제공됐으나 사회교육이나 취미활동에 국한돼 있음. 장애인과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레저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움.

<벤치마킹 시행방안>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타운(혹은 센터) 건립

- 행복촌과 같이 대규모 복지레저타운을 서울시에 건립하는 것은 부지 선정이나 소요예산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 ‘서울형 복지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장애인·비장애인 및 고령자 통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접근성이 강조되는 이용시설 및 서비스는 지역단위 시설을 중심으로 제공해야 하나 시설이나 서비스 규모를 고려할 때 재활병원이나 가족 여가시설, 교육시설 등은 광역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장애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과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레저시설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장애나 연령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목표로 한 시설 및 서비스 설계가 이뤄져야 함.
- 종합복지타운 내 시설 건립에 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개인적인 기부문화를 활용한 사회통합적 복지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장애인 및 고령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합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장애인과 노인이 가족과 함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저·문화시설을 복합공간에서 제공해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음.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1. ‘베를린 어젠다’ 추진방안 모색 (베를린)

○ 베를린市 도시개발부는 市의 기본 정책방향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프로그램인 ‘베를린 어젠다’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토론함.

－ ‘베를린 어젠다’는 정치, 행정, 경제, 시민사회 분야 등 사회 전 영역의 참여와 협력이 핵심임.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청사진과 목표, 전략을 구체화해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임.

－ 市는 이미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어 ‘베를린 어젠다’가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702/nachricht2567.html)

2. 관리인력 채용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는 공공서비스 관리부문에 관심 있는 석사 졸업생을 훈련하는 ‘관리인력 채용 프로그램’(Management Associate Program)을 시행함.

－ 공공관리, 경영, 교통, 항공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및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고 약 2년간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기관에 순환 배치돼 실무교육을 받음. 급여와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음.

－ 관리자 양성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이므로 프로그램을 마칠 경우 항만공사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www.panynj.gov/AboutthePortAuthority/CareerOpportunities/JobPostings/JobPost/mgmt_associate.html)

3. ‘양대 하이테크 벨트 시스템’ 도시 공간분포 계획 마련 (북경)

○ 북경市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북경市 11차 5개년 하이테크산업 발전계획’(北京市‘十一五’时期高技术产业发展规划)을 발표하면서 북경市 전체 공간분포 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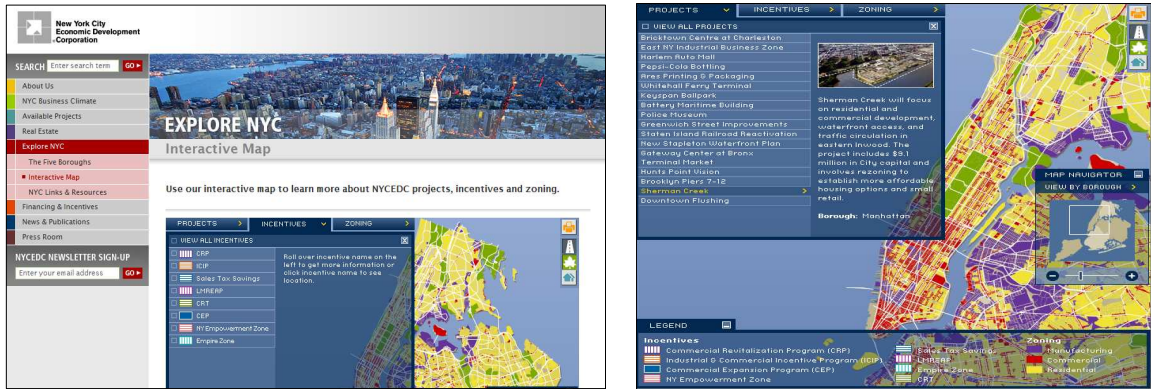
- 기존 하이테크산업 공간분포와 산업자원 및 산업발전 현황을 결합한 ‘양대(兩大) 하이테크 벨트 시스템’ 도시 공간분포 계획을 발표함.
- 관련 산업을 여러 지역에 분산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8대 산업기지로 성장 시키며 전체 산업클러스터 성장에 활력을 줌.
- 도시 전체 공간분포 계획에서 북경·천진·하북성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현재 하이테크산업 클러스터와 결합해 각종 중점산업을 육성하며 산업 가치사슬을 잇는 클러스터 벨트를 형성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개념임.
- 구체적으로 서북방향의 중관촌 행정구 高新기술 산업개발구 중심의 하이테크 연구개발 서비스 발전지역과 동남방향의 북경 경제기술 개발구 중심의 하이테크 제조업 발전지역의 양대 하이테크 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임.



(www.bjd.com.cn/bjxw/mtdd/sbjx/200701/t20070122_157492.htm)

디지털 도시

4. 市 개발계획을 지리정보 서비스로 제공 (뉴욕)



- 뉴욕市 산하 뉴욕시 경제개발공사(New York C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는 최근 새로운 형식의 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 정보와 市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의 인센티브 내용, 뉴욕市 5개 버러(borough)의 현 토지이용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해당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링크된 웹사이트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음.

(www.nycedc.com/Web/ExploreNYC/InteractiveMap/InteractiveMap.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지리정보 서비스가 매우 다양함.
- 뉴욕市 도시계획과는 각종 개발계획 정보와 실제 토지이용 정보를 도면과 함께 제공함(www.ci.nyc.ny.us/html/dcp/home.html의 Projects 메뉴와 Reference의 Land Use Facts 메뉴 참조).
- SCAG(www.scag.ca.gov/landuse)과 보스턴市의 재개발청(www.cityofboston.gov/bra/maps/maps.asp)도 항공사진과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웹사이트를 이용해 일반 시민에게 간편하게 도시 개발계획과 용도지역,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도시계획 포털서비스를 준비 중인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정보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이주일 도시계획부 부연구위원(leejay@sdi.re.kr)

5. 市를 브랜드화한 콘돔 생산 (뉴욕)

- 뉴욕市 보건국은 최근 콘돔 제조회사인 앤셀라이프스타일과 157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뉴욕市를 상징하는 지하철 색깔별로 콘돔을 만들어 ‘뉴욕시 콘돔’이라는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
- － 뉴욕市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한 달 동안 150만 개의 콘돔을 무료배포하기로 함.
·토마스 프라이든 보건국장은 “콜라나 약도 브랜드 제품이 잘 팔리듯 콘돔도 ‘뉴욕시 콘돔’처럼 브랜드화한다면 콘돔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함.
- － 뉴욕市 주민의 65세 이하 사망원인 중 에이즈가 암과 심장병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짐. 2005년에 에이즈 사망자가 1400명에 달하자 미국에서 뉴욕市의 에이즈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뉴욕시 콘돔’ 생산을 계획했음.
(미주 한국일보, 2007. 2. 6)

6. 구립 초·중학교 통합교육 추진 (도쿄都 시나가와區)

- 도쿄都 시나가와(品川)구는 초·중학교 통합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교원을 채용하기로 함.
- － 2009년에 1기생 5~6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30명 정도 區교육위원회 직원을 채용하기로 함.
- － 시나가와區는 일본 정부가 교원 인사권을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에서 시정촌 교육위원회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에 대비해 區 내에서만 근무하는, 통합교육에 정통한 교원 양성을 지향함.
- 시나가와區 구립 초·중학교 통합교로는 2007년에 하라초등학교와 이토중학교를 통합한 이토학원이 개교하고, 2010년에 히라츠카초등학교와 히라츠카중학교가 통합될 예정임.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2. 8)

7. ‘불이 켜진 런던’ 조명행사 개최 (런던)

- 런던의 대표 명소인 타워브리지와 런던브리지, 군함 벨파스트호 등이 모여 있는 핵심 관광지역인 템스강변의 더풀(The Pool of London) 지역을 중심으로 빛과 건축물, 도시가 어우러지는 ‘불이 켜진 런던’(Switched on London) 조명행사가 2007년 2월 중 9일 간 열림.
- 이 행사는 도시와 건축물, 조명을 연계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 설계에서 조명이 가지는 의미를 재해석하기 위해 마련됨.
·조명이 도시 건축물과 공간의 심미성 및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유명 조명 디자이너들이 템스강변을 따라 테마별로 조명을 설치하고, 건물 외부 조명에 쓰는 전력이 에너지 낭비라는 기존 인식을 벗기 위해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조명등을 사용함.



(www.tfl.gov.uk/tfl/press-centre/metro/article.asp?id=1450),
(www.switchedonlondon.co.uk), (www.rudi.net/node/13087)

도 시 환 경

8. 초·중학교 에코 스쿨화 추진 (도쿄都 스기나미區)

○ 도쿄都 스기나미(杉並)구는 2007년부터 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에코 스쿨화를 추진해 환경교육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힘쓸 계획임.

- 신축 예정인 오기쿠보(荻窪) 초등학교는 지하 열을 이용한 온도조절과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해 에코 스쿨 모델로 할 계획
- 오기쿠보 초등학교는 지상보다 겨울에는 2℃ 높고 여름에는 2℃ 낮은 지하를 통해 외부공기를 교실로 유입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계획임.
- 건물 벽면에 담쟁이덩굴이 뻗어 올라가도록 하고 발코니를 설치해 여름에 직사광선을 차단함.
- 콘크리트는 열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내장재로 목재를 사용함.
- 야간에는 환풍기를 돌려 외부공기를 실내로 통하게 해 열기를 배출
- 운동장에는 잔디를 심고 옥상녹화를 하며 빗물을 모아 화장실용으로 활용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2. 6)

>>> 전문가 검토의견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첨단기술이나 복잡한 기계장치를 사용하기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기본 고려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시각적 효과가 큰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며 빗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환경교육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 서울 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과 함께 오기쿠보 초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9. 도심에 도시농장 운영 (런던)

○ 런던 신도시 지역인 도크랜드 카나리워프(Canary Wharf)의 고층빌딩 숲 뒤편에 동물이 뛰어노는 도시농장(Urban Farm)을 운영함.

－ 도시농장은 구청 직영부터 자선단체와 학교 등의 기관 위탁운영까지 런던市에 만 30여 군데가 있음.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해 결성한 ‘도시농장과 마을공원 연합’(FCFCG: Federation of City Farms and Community Gardens)이 정부와 찰스황태자 등 외부 후원을 확보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유제품을 생산하는 농장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있으며,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체험학습장 기능도 함.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 제공과 시민사회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또 다른 학교 기능도 함. 도심지역의 녹지공원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음.

－ 켄 리빙스톤 런던시장은 도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생생한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매년 50만 명이 런던 소재 도시농장을 찾고 있다며, 도시농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런던시내 도시농장과 마을 공원 안내지도

(www.farmgarden.org.uk)

10. 학교 방음시설 설치자금 지원 (뉴욕)

- 2007년 1월 30일 JFK공항, 뉴왁공항, 라구나나공항 등 뉴욕과 뉴저지의 공항과 도로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공사가 공항 근처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10개 학교의 방음시설 설치를 위해 3500만 달러(약 325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
-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함께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 1983년부터 현재까지 48개 학교가 혜택을 받았고 현재 29개 학교에서 방음시설을 설치 중임.
- 지금까지 총 4억 달러(약 3720억 원)가 지원됐으며 연방항공청은 공항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지원금액의 약 80%를 부담하고 있음.

(www.panynj.gov/AboutthePortAuthority/PressCenter/PressReleases/PressRelease/index.php?id=911)

한줄 뉴스

<베를린>

- 2006년 12개 고용안정센터의 장기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연방지원금 4억 8600만 유로(약 5832억 원) 중 8.8%인 4300만 유로(약 516억 원)만 미지출
- 연방 차원에서는 평균 16.6%를 미지출해 베를린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
- 2007년에는 5억 2000만 유로(약 6240억 원)를 연방지원금으로 받음.
-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환경보호요금 제도를 신설해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해 주는 배지를 발급해주고 발급비 명목으로 5유로(약 6000원) 징수

11. 이산화탄소 배출료 제안 (런던)

- 런던시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The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이 제시한 기존의 기후변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료(carbon-pricing)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함.
- 제안 배경은 현 세대에 평균기온이 3℃가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결과와 지구온난화 대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있음.
- 이산화탄소 배출료의 필요성과 함께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영국 최초의 시나리오 작성도 함께 진행 중이며, 이산화탄소 감소를 전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런던과 세계 여러 도시의 네트워크인 ‘C40 그룹’ 결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0709)

12. 도시 전체를 환경구역으로 지정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 독일 슈투트가르트市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미세먼지 기준을 따르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도시 전체를 환경구역(Umweltzone)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예정
- 유해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4개 그룹으로 나뉘 그룹 2~4에 해당하는 차량만 도시에서 운행할 수 있고, 그룹 1 해당 차량은 도시 내 운행이 금지됨.
- 각 그룹마다 빨강, 노랑, 녹색 스티커를 나눠주는데, 스티커 교부를 위해 도시 곳곳에 교부처를 둘 예정임.
- 정비공장이나 검사장 같은 자동차와 관련된 곳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스티커 신청이 가능함.
- 2007년 3월 1일부터 스티커를 교부했으며 스티커 가격은 6유로(약 7200원)임.
- 2007년 7월 1일까지 약 30만 개의 스티커를 교부할 예정

(www.stuttgart.de/sde/menu/frame/ns_top_11021.htm)

13. ‘도쿄 어스(Tokyo Earth) 프로젝트’ 시행 (도쿄都 미나토區)

- 도쿄都 미나토(港)구는 도심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농촌으로 가져가 비료로 사용하고 그렇게 재배한 농산물을 도시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도쿄 어스(Tokyo Earth) 프로젝트’를 시행
 - 음식물쓰레기 활용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타운(Biomass Town) 구상이 있지만 미나토區 사례는 시민의 힘으로 모델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임.
 - 수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 채소를 재배해 온 시민단체인 ‘생활복지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전통농업 지속이 어려워진 농가를 도시 주민이 지탱해 주고 지역 장애인이나 고령자, 미취업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계획임.
 - 음식물쓰레기 건조나 운반, 야채 조리 및 판매 등을 지역 주민이 맡음.
 - 사업 예산 2억 엔(약 16억 원)의 절반은 도쿄都 지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재원을 모을 계획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7. 2. 3)

한줄 뉴스

<영국>

- 런던市 머튼區, 개발 시 재생에너지를 10% 사용하도록 한 환경정책 시행으로 왕립 도시계획협회의 ‘실버 주빌리 컵’(Silver Jubilee Cup) 수상
- 영국정부, 주택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Carbon Challenge’ 프로그램 실시
- ‘지속가능한 주택 코드’를 만들고 친환경 주택에 세제 혜택 제공

도 시 교 통

14. 도로 횡단 시 휴대용 MP3 청취 금지 추진 (뉴욕州)

○ 2007년 2월 7일 칼 크루거 뉴욕州 상원의원이 도로 횡단 시 휴대용 MP3 청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 크루거 상원의원은 “브루클린에서 2006년 9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보행자 중 MP3나 휴대폰 등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3건이나 됐는데, 이중한 사람은 사고 당시 돌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했고 누군가 ‘조심해요’라고 소리 쳤는데도 듣지 못했다.”며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함.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 시 벌금 100달러(약 9만 4000원)를 내야 함.

(미주 한국일보, 2007. 2. 7)

15. 市 교통국의 독자적인 법원 설립 추진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 도시교통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무임승차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대중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소환하거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원 설립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힘.

－ 대중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약 25만 원의 벌금을 내고 48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법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소환 명령을 받은 6만여 명의 위반자가 벌금도 내지 않고 법원에도 출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교통국 관계자는 독립적인 교통국 법원을 설치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범죄자를 좀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더 많은 벌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교통법규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www.latimes.com/news/local/la-me-transitcourt29jan29,1,6905701.story)

16. 자전거 배달원에 헬멧 제공 의무화 (뉴욕)

- 뉴욕市 의회는 2007년 2월 5일 자전거 배달원을 고용한 사람은 배달원에게 안전헬멧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상정
 - 앨런 거슨 뉴욕시의원은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받는 자전거 배달원에게 헬멧을 제공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안전장비 구입에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배달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함.
 - 아이리스 와인설 뉴욕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지 고용주의 헬멧 제공 의무화만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부가 현재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고 곧 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덧붙임.
 - 최근 뉴욕시 교통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뉴욕시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가운데 74%가 머리를 심각하게 다치는 사고였으며 머리 부상자 가운데 97%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자전거 배달원의 안전불감증도 문제라고 지적함.

(미주 한국일보, 2007. 2. 6)

17. 유료 고속도로 확대 건설 (캘리포니아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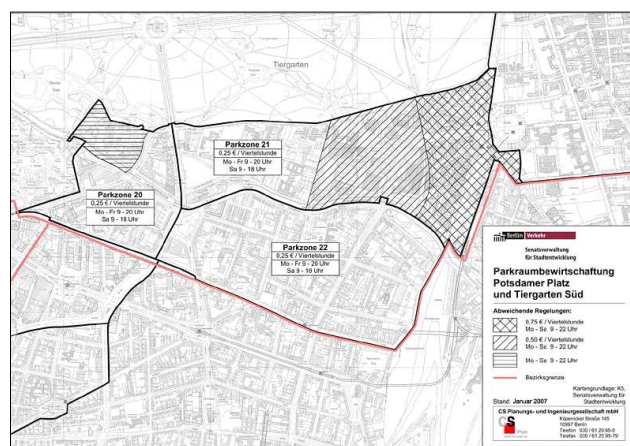
- 캘리포니아州는 고속도로 발생지라고도 할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문화가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최근 州의회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유료 고속도로를 확충해 재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음.
 - 현재 뉴욕州와 펜실베이니아州에서 880km의 고속도로가 유료화된 것에 비해 캘리포니아州는 약 131.2km의 고속도로만 유료임.
 - 오렌지카운티에서 시행중인 91번 유료 고속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편도 16km를 이용할 경우 약 8700원의 요금이 부과됨.

- 대부분의 운전자가 유료 고속도로 건설에 반발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이미 2006년 5월에 정부기관과 투자은행, 운송회사 등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음.

(www.latimes.com/news/local/la-me-roads13feb13,0,5269294.story?coll=la-home-headlines)

18. 효율적인 주차공간 관리방안 마련 (베를린)

- 베를린시는 혼잡지역 6곳에 30개의 주차공간 관리지역을 선정해 약 5만 9000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구역별로 주차가능한 시간과 요금이 표시된 도면을 만들어 각 구청에서 배부함.
- 주차공간 관리를 시가 주도하게 된 이유는, 주차하려는 차량이 현 주차공간보다 많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많은 차량이 도로를 배회하기 때문임. 이러한 차량이 구역에 따라서는 총 차량의 20~30%를 차지하는데, 이는 소음과 배기가스를 더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교통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베를린시 교통정책 원칙에 따른 새 주차공간 관리계획이 시민에게 좀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적으로 이로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verkehr/parkraumbewirtschaftung)

19. 런던 디자인국 신설 (런던)

○ 런던시장은 런던市の 건축과 도시디자인을 향상하기 위해 런던 디자인국 (London Design Agency)을 신설함.

- 이 기관은 런던 내에서 일어나는 주요 개발계획과 개발에 있어 디자인의 가치를 고려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며 런던 지구 및 지역, 광역에 걸친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현재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예정지와 템스 게이트웨이 재개발 지역에 대해 디자인 측면에서 계획의 골격을 짜고 있음.
- 디자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Planning, 2007. 2. 8)

>>> 전문가 검토의견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을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간판 등 부분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체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이 필요함.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뉴욕, 파리, 싱가포르, 도쿄, 요코하마, 고베 등 세계 대도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는 추세임.
- 서울시 전담부서 개편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시 참고할 수 있음.

/박현찬 도시계획부 연구위원(hcbahk@sdi.re.kr)

20. 차이나타운에 ‘Blossom Plaza’ 건설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 지역개발국은 차이나타운에 7000만 달러(약 657억 원) 예산으로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힘.
- ‘Blossom Plaza’라는 이 주상복합건물에는 223개의 주거시설과 3716㎡ 이상의 상업시설을 비롯해 문화센터 및 929㎡의 야외 공연장까지 포함됨.
- 승용차 6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물론 지하철역까지 잇는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는 등 접근이 쉽도록 계획
- 문화센터는 전시회를 비롯해 문화교실과 공연장을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중국 전통 정원을 조성하기로 함.
- 로스앤젤레스市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민족이 사는 도시의 특징을 보존하고 부각해 활발한 상업활동과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기대함.



(www.crala.org/internet-site/Projects/Chinatown/index.cfm)

>>> 전문가 검토의견

-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과 더불어 1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 1만 4000여 명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중국풍 공간에서 중국식 디자인 건물, 협소한 길, 현란한 색깔 등으로 중국문화를 느낄 수 있음.

- ‘Blossom Plaza’ 프로젝트는 현대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재개발 사업임. 프로젝트가 끝난 후 상업활동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외부 관광객이 중국문화와 전통성, 상징성이 없는 차이나타운을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만약 서울에 현대식 상가나 주상복합식 현대 건축으로 된 차이나타운이 건설된다면 서울 시민이나 외국관광객이 찾을 것인지 의문임.
 - 외국인 타운은 출신국가의 공간문화가 축적돼 이국적인 환경으로 꾸며 자국민이나 다른 나라 관광객이 호기심을 갖고 찾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홍석기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21. 고층 건물의 색채기준 초안 공표 (도쿄)

- 도쿄都가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 외벽 색채기준을 제시한 ‘都 경관계획’ 초안을 공표함에 따라 자연색과 유사한 난색계(暖色系)를 기본으로 하되 원색에 가까운 색이나 흑색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
- 도민 의견을 수렴해 2007년 3월에 계획을 확정하고 4월 이후에 신축·개축하는 건물부터 적용할 방침임.
- 도내 23개 지역에서는 높이 60m 이상 건물이, 다마(多摩) 지역에서는 45m 이상 건물이 적용 대상임.
- 스미다(隅田)강이나 간다(神田)강 주변 지역은 건물 고층화 규제뿐 아니라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기준을 정함.
- 도시 전체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 색의 선명함에 상한을, 밝기에 하한을 두고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경관법에 근거해 권고나 변경 명령을 내리게 됨.
- 대상 건물은 배치나 형태, 녹화에 관해서도 경관을 배려하도록 하고 경관계획에는 문화재 공원 주변이나 임해 지역의 옥외 광고물 규제 강화도 포함함.

(마이니치신문, 2007. 1. 19)

22. 300만㎡ 규모의 중저가 주택단지 건설 (북경)

- 북경市는 주택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에 300만㎡의 중저가 주택과 200만㎡의 상업용 건물을 건설하고 30만㎡ 규모의 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생활보호대상 가구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
- 중저가 주택은, 지하철과 도시궤도열차 등 궤도교통망 부근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건설하며 2007년이나 2008년에 석경산 등 5개 지역에 건설할 예정임.
- 상업용 건물은 전체 도시에 52개를 건설할 예정으로 24개는 이미 준공한 상태고 나머지는 건설 중임.
- 상업용 건물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정책 병행을 연구 중이며, 이를 악용해 임대료 수입만을 노리는 재임대 사업은 엄격히 금지할 예정

(北京商報, 2007. 2. 5)

한줄 뉴스

- 도쿄都 재무국, 2006년도 都 세수입이 4조 9771억 엔(약 37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발표
- 경기회복으로 법인세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입 증대. 2007년 세수입은 5조 3030억 엔(약 41조 원)으로 전망

<북경>

- 2007년 2월 2일 해정區 인사국이 마련한 '퇴직근로자를 위한 문화예술공연'에 1000여 명의 관객이 호평
- 2007년 도시궤도교통망 수립에 주력해 2015년까지 선로가 561km에 이르는 3환(環), 4횡(橫), 5중(縱), 7방사(放射)형의 궤도교통망을 구축할 계획